

“眞空은 不空의 空이요 妙有는 非有의 有로다”

공작이 알 품은 곳 수타사

수컷을 알아 암컷을 지키며
흰색을 알아 검은 색을 지키며
말을 알아 말하지 않음을 지키며
지혜를 알아 우매함을 지키다.

강원도 홍천 수타사(壽陀寺) 부도밭 홍우당 선전(紅藕堂 善天; 1611~1689) 스님의 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 길지 않은 비문은 스님의 출생과 공부 이력에 대한 언급과 찬(讚)한 제자 정원(淨源) 스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의문 한 덩어리를 안고 부도밭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연일 내리던 장맛비가 주춤한 날입니다. 부도밭 앞쪽의 불어난 계곡 물에 푸른 산이 어리었는데 여린 안개가 피어 올라 물과 산의 경계가 흐릿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쪽의 수목화 속에 들어 와 있다”고 했더니 동행한 아내는 “우리가 들어 와서 그림이 완성 된 것”이라고 도사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림을 알아서 우리를 지키는 것인지, 우리를 알아 그림을 지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일이긴 하지만 수타사 계곡을 찾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탐방로를 따라 계곡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불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에 들어가 지은 지 300년이 넘는 봉황문과 홍회루를 지나 대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께 절이라도 올릴 텐데, 다들 뭐가 그리 바쁘지 계곡을 따라 올라 버립니다. 물론 부도밭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타사 부도밭은 절 초입, 주차장을 지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키가 큰 금강송 숲인데 부도밭 뒤쪽으



홍우당 탐비

로 도열해 있는 부도와 비석은 매우 소박한 이미지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5기의 부도와 2기의 탐비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5기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수타사 부도밭은 공간 속의 존재감을 생각하게 하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법 너른 터에 드문 드문 서 있는 금강송과 뒤쪽으로 나란히 서 있는 부도들의 고즈넉한 자태 그리고 북적이는 주차장 바로 곁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윽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넓은 부도밭 맨 뒤쪽에 조용히 서 있는 부도들은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애쓰지 않으므로써 그렇게 오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조각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이미 누군가에게 훼손됐을 것입니다. 홍우당 스님의 비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겸양을 알아 존재를 지키는 지혜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자꾸 드러내려 애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파멸의 함정을 파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스스로의 존재성을 어떻게 꾸미고 가꾸느냐 하는 것이 생존의 법칙으로 통합니다. 연예인들은 스스로 ‘미친 존재감’을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더러는 거부감이 듭니다.

물색없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욕심에 도취돼 신중한 고민도 없이 정책을 남발합니다. 국민민복은 말로만 떠들고 마음속으로는 오

묵묵히 존재감 드러내는 부도밭

철저한 수행자 홍우당의 삶 닮아

직 표면 계산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그 덕분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수타사 부도밭을 찾아가 배워야 합니다. 부도밭 앞에 서서 있는 듯 없는 듯 고요의 무게로 서 있는 부도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생애가 한 덩어리의 돌로 육화해 세세생생의 인연들을 빗물과 바람으로 씻어내는 부도들. 초목이 자라고 스러지기를 되풀이하는 숲의 시간 속에서는 부도마저도 한 포기의 풀이되고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지혜, 그 어우러짐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20년 전 역불(御佛)의 시대를 풍요롭게 했던 철저한 수행자라면 살았던 홍우당의 삶이 그려졌을 겁니다.

“삼업(三業)을 정성스럽게 닦고 두루 염불에 힘쓰니 마음을 오롯이 해서 배를 물아 번뇌로 시끄러운 네가리를 조용하게 하며 파도가 지혜의 바다를 맑게 하는 격이었다.”

제자는 스승의 한 평생 수행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홍우당의 부도(강원도문화재자료 제15호)는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따랐지만 화려하게 꾸미거나 크기를 부풀리지 않은 소박하고 단아한 자세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탐비는 부도보다 작은 키에 아무런 장식도 없는 몸돌 하나만으로 서 있습니다. 비문은 풍



공간 속의 존재감을 생각하게 하는 힘을 지닌 수타사 부도밭

화가 심해 알아보기 힘들다.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승의 입적을 애도하며 적절로 돌아간 진여의 법체를 찬한 대목도 압권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현연히 참된 것으로 돌아가니 80에서 하나가 모자라네. 진공(眞空)은 불공(不空)의 공이요 묘유(妙有)는 비유(非有)의 유로다. 자취를 끊어 버리고 이름과 언어를 여니 이것이 곧 대사의 자취로세. 니원(泥源: 입적)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땀값이 다 타버리는 슬픔이로다. 눈물 흘리며 거북이 털로 만든 붓을 잡아 굳이 토끼 뿔로 된 비석에 애도를 표하도다.”

아, 불공의 공과 비유의 유를 아는 것. 그 도리에서 수컷을 알아 암컷을 지키고 흰색을 알아 검은 색을 지키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닐는지요? 1690년에 세워진 이 비에 새겨진 제자의 마음과 스승의 생애가 조응해서 더욱 당당하고 소박해서 더욱 화려한 이유도 그 도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수타사 대적광전의 수미단과 단집에 피어난 찬연한 연꽃처럼 사람 사는 세상도 부처님께 귀의해 ‘진공이 불공의 공이며 묘유가 비유의 유’임을 자각할 때 더 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중생심이란, 한쪽에 끌리는 마음입니다. 진공이라 하면 진의 세계에 끌리고, 묘유라 하면 묘의 이치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진공으로 불공을 보고 묘유로 비유를 보는 중도의 눈을 갖지 못하기에 중생은 중생심에 얽혀사는 것입니다.

홍우당 서곡당 등 부도 소박한 ‘이미지’ 드러내지 않아서 오히려 당당한 ‘존재감’

홍우당 부도 옆에는 양식과 크기가 엇비슷한 부도 하나와 탐비가 서 있습니다. 서곡당 찬연(端谷堂 贊淵; 1702~1768)스님의 부도와 탐비입니다. 찬연 스님은 영조 23년(1747)에 황성군의 봉복사를 중창한 스님입니다. 수타사와 봉복사에서 수행을 했던 스님은 수타사에서 입적했습니다. 대비 후에 두 과의 사리가 나와 한 과는 수타사에 부도를 세워 모시고 또 한 과는 봉복사에 부도를 세워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찬연 스님의 부도는 수타사와 봉복사 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작산 수타사라는 절의 이름에는 절의 역사가 묻어 있습니다. 처음 절이 지어진 것은 신라 성덕왕 7년(708)이며 이름은 우적산(牛跡山) 일월사(日月寺)였습니다. 조선 선조 2년(1568)에 이 절이 위치한 지형이 풍수지리학상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땅[孔雀抱卵之地]으로 명당이며 동쪽은 공작이 선 형태, 서쪽은 소가 지나가는 형상, 남쪽은 용이 나는 모양, 북쪽은 용담이 흐르는 곳이라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으며 이름도 수타사(水壘寺)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물이 떨어진다 이름이 무색하게도 오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발해 절은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폐허에 방치됐던 절은 인조 14년(1636) 공잠(工岑) 스님이 중창을 시작하며 담우가 들어서고 봉황문과 홍회루 등이 들어섰습니다. 다시

부흥기를 맞은 뒤 절의 이름도 지금의 수타사(壽陀寺)로 바뀌었습니다. 순조 11년(1811), 율해를 기준으로 꼭 200년 전의 일입니다. 풍수지리적 견해를 따랐던 절의 이름이 다시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시대상의 반영이자 그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육색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왜곡된 교리를 앞세워, 잊지도 않은 복주머니 장사를 하는 부류들에게 홀려 정법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술하게 많습니다. 한 마음 돌려 한 발 앞을 청정히 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뒤영진 심사로 먼 내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 어찌 종교라 하겠습니까? 진공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대로임을 깨달으라는데, 눈을 감은 채 ‘빛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격입니다.

수타사 부도밭 앞 금강송 한 그루는 그 가슴에 뽕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리지(連理枝)가 아니라 몸에 난 상처에 쌓인 흙먼지 더미에 뽕나무가 뿌리를 내려 살고 있습니다. 4m쯤 되는 높이에서 절묘한 공생(共生)이 부도밭에서 듣는 무언의 법문을 더욱 숙연하게 받아들여줍니다. 잠깐사이 구름이 물러와 비가 한차례 몰아치는 수타사 부도밭에서는 우산 쓰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글·사진=임연테(시인·본지는설위원) mian1@hanmail.net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범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정대행 :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